

‘도덕적 기준’ 우선... 정치인·관료 중용

■ 이대통령 인선 과오 인정...개각폭 커지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 있다” 청·내각 동시에 교체...최소 중폭 이상 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조각 등에서의 인선 오류를 인정함에 따라 국정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각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간)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부자’(강남부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영남)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내각 및 청와대 인선에 대한 과오를 뒤

늦게나마 시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인사 비판에 대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일과 능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의 폭넓은 인적쇄신 요구를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 대통령이 최근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개각을 포함한 모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회가 빨리 열려야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고 개각을 하더라도 청문 절차 등이 열릴 수 있다”며 처음으로 개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국정최선책으로 이 대통령이 내놓을 개각의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최소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각과 청와대를 합쳐 10여명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 내각에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성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청와대에선 류우의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등의 교체를 점치는 시각이 나

오고 있다.
여기에 박재완 정무수석은 공식적인 사회 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추부길, 장다사로 비서관 등 일부 비서관급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개각을 단행할 경우 후임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높은 ‘도덕적 잣대’와 ‘탕평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및 관료 중용설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과거 여당 성향 인사들의 중용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당으로서 (당내) 의원들과 당 밖의 정치세력도 포함하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담긴 장관교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탕평인사를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구원투수론?

‘총리설’ 다시 부상...측근들은 찬반 양론

여권 내부에서 ‘박근혜 총리설’이 대두되고 있다.
최고기 파문으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특단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 구원투수론’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유효하다”면서 “(성사) 여부를 떠나 좋은 정국수습 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이며 택할 것이나, 마느냐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권 주변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총리 기용설이 정치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나왔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유효한 카드’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총리카드’는 단순한 설(說) 차원을 넘어서 여권 핵심부의 진지한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기류는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박 전 대표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친박 인사들의 조기 복당이 이뤄진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박 전 대표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양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박재완 정무수석은 접촉 여부에 대해 “나는 모른다”면서 “내가 아는 한 없다”고 말했으나 전면 부정은 아닌 듯한 위양스를 남기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격인 유정복 의원은 “아직 들은 것이 전혀 없다”면서



“아직 총리가 사의 표명한 것도 아니어서 박 전 대표가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 측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권력 사유화’ 발언...與 인적쇄신 내홍

정두언 발언 공감대 확산...당 파문 차단 주력

한나라당 내 인적쇄신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권력 사유화를 재차 비판한 정두언 의원의 발언이 촉매제가 됐다.
당 지도부는 파문 확산 차단에 주력하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으나, 다수 의원들이 의총에서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인적쇄신을 두고 당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 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질까지 잘못에 묻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사실패가 무능 및 부도덕 인사로 이어져 결국 국정 실패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사실패를 초래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게다가 그들이 또 다시 인사쇄신까지 주도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래 가지고 쇠신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것을 권력투쟁으로 볼고 가는 세력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사약도 받을 일”이라며 “권력투쟁이라면 결국 자라다름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자리에 연

연한다면 과연 이렇게 사약을 받을 일까지 하겠느냐”고 권력투쟁설을 일축했다.
“권력 투쟁”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류우의 대통령실장과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등 이 대통령 주변 인사에게 인적쇄신의 갈날을 정면으로 겨누는 데 따라 인적쇄신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 의원 발언의 형식이나 시기는 부적절했지만 내용에는 적지 않은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 발언에 공개적 반대는 없었다”며 “정 의원의 충정을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이해돼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말씀은 진솔하게 한 것으로 본다”면서 “눈물을 글썽거린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의총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는 사람들이 내부 분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집권 여당의 자화상”이라며 “해당 행위 당사자들은 응당



정두언 의원 ‘빙글’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의 권력 사유화 발언 파문의 주인공인 정두언(가운데) 의원이 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 차명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 시기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조운선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대체로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

강 대표, 전대 6월 조기 개최 전격 제안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9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 “6월 중순쯤 최대한 빨리 앞당겨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전격 제안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 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당정정이 비슷한 시점에서 모두 인적쇄신을 해서 (새) 출발하는 게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출발하는 데 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사무총장에게도 말했지만 오늘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회의가 있고, 내일 경선 선관위 회의가 있는데 최대한 전당대회를 앞

당계 당정정이 비슷한 시점에 인적쇄신을 통해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특히 개각과 관련, “지난번 대통령을 뽑고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폭넓은 개각을 해주십시오’고 말했다”면서 “그 이후에 청와대 비서관이 전부 사의표명했고, 금명간 곧 내각이 사의표명할 것이라고 듣고 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당정정이 삼위일체가 돼 앞으로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단합해서 나가야 한다”면서 “새 출발하는 데 당도 같이 대통령과 함께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홈페이지 참조)

“이젠! 공무원시험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여름방학 공무원시험 합격전략 무료 설명회

일자: 6월 28일 15:30~18:30 **당일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집 무료증정**

개강 7월 1일

www.hanbitgosi.co.kr (홈페이지 참조)

에비공무원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북구청앞 234-0234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한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 1일 **문제풀이특강** 교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첫진도 시작반)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담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급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개원동 구사정사거리(중흥동) 대한일보 및 정충빌딩 6층

=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성황리 강의중)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 보건의직 전담 23명, 전북 16명 9월 27일, 경기 56명 8월 2일, 서울 29명 (열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7월 1일 (주·야반모집)** 합격수강 회원모집

● 전남: 제1회 공-경 9월 27일 209명
● 경기: 제2회 635, 전북 119명 공제
● 서울: 교행 6명만. 일종 7.20. 1.133명, 기타 8.17. 656명

● 6개월 (중)회원 80만원
● 1년 (정)회원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i.co.kr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원초교 우문앞) ☎ 222-4560